

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해명자료</h1>	2016. 10. 7(금)	
		작 성 문 의	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실 과장 이희은 / 팀장 허 흥 (Tel. 044-200-2795)
* 엠바고 : 즉시 사용			

「 “청와대·안전처 ‘경주강진’ 통보 못받아..팩스고장” 」
보도 관련
 (2016. 10. 7(금) 연합뉴스)

10.7(금) 총리실 관련 언론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함

보도내용

<p>- ‘9·12지진’발생 당시 기상청이 발송한 긴급 지진통보 팩스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(연합뉴스, 16.10.7) 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청와대와 국무총리비서실도 포함돼 문제가 심각 ○ 특히 1회 이상 팩스를 수신하지 못한 주요 기관들 국무총리비서실 등 재해재난 업무 관련 기관이 다수 포함돼있다 ○ 기상청 관계자는 ‘일부 정부기관의 경우 기계 고장 등으로 수신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’고 밝혔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

해명내용

-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조정실과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
- 9.12일 당시 상황실(당직실) 팩스는 정상 가동되고 있었음
- 또한, 국무총리실에서는 상황실, 안전환경정책관실, 외교안보정책관실
개발협력정책관실 등 관련 부서에서 긴급 지진통보를 수신하였으며
특히 상황실(당직실)에서는 관련 상황을 즉시 전 직원에게 문자
발송하여 긴급상황에 대비토록 조치함